

유교와 기독교의 종교 교육적 비교연구 -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

최 상 권
한국교원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유교와 기독교의 종교 교육적 비교연구로서 최근 개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량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총론에 근거하여 설정된 종교교과 핵심역량으로 제시 된 종교 간의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에 근거하여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상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개방적인 종교 교육학의 관점에서 유교와 기독교 교육의 핵심가치를 통하여 교육적인 내용의 교훈과 근본정신을 확인하고 그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해 봄으로써, 이론적인 논의와 현장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의미를 함께 찾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이다.

먼저 논어를 중심으로 한 유교의 교육적 이념은 인을 중시한 군자와 같은 덕 있는 인간을 양성하고,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여 이루는 공동체인 대동 사회를 지향함을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적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독교의 교육이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과 인간을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봉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연구자가 정리한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 두 가지의 핵심적 가치가 하나 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공자의 인에 대한 지역적 차이 및 시대적 배경과 출발점은 다르나 모두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과 공경함으로써 서로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결국 두 입장 모두 인간학이라는 큰 범주 아래 묶일 수 있을 것이며 양자의 강조점으로 인하여 가족의 범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을 강조하는 입장이든 그 핵심적 공통분모는 바로 인간이며 나와 타인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교 종교적인 접근이 각자가 소속된 종교의 입장에 입각한 관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종교 교육적 차원에서의 양자(兩者)간의 입장을 비교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실의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인과 사랑이라는 두 종교의

핵심가치를 통하여 조화적인 입장을 갖고 종교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하나 된 그리고 조화 및 화합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조그마한 시작점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 더 심도 깊은 양자에 대한 연구와 더 폭넓은 방법론의 접근을 통하여 유교적 기독교 교육 또는 기독교적 유교 교육으로의 심화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더 많은 유교와 기독교 교육의 학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갖고 서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는 개방적인 종교 교육적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핵심주제어: 2015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유교, 기독교, 핵심가치, 종교다원주의, 비교 종교학, 기독교적유교교육, 유교적기독교교육

I. 서론

2018학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역량¹⁾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이며, 본 주제의 핵심가치²⁾와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적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 이후 종교적 상황도 여러 형태의 다원화된 종교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의 종교교육은 특정종교의 신념체계에 입각하여 종단교육에 치중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다원화된 사회를 안내하는 중추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량과 핵심가치를 교육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언급하자면 교육의 목표, 교육적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가치를 토대로 한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교육적 목표 설정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성에 따른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도 교과 역량을 제시³⁾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종교 문화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 연구의 방법을 통해 진리의 엄밀성을 검증하는 학문적 시도인 동시

1) 역량(力量, Competence)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학문의 논의로 역량개념을 도입한 초기 연구자는 White(1959)였다. 그는 역량의 개념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유기체의 본능이나 욕구에 비롯된 유기체의 특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화이트가 역량의 개념을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능력 중에 환경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상황을 통해 획득되는 능력이 타고 난(innate) 것 이라기보다는 길러지고 학습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남진·온정덕,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6), 40쪽.

2) 핵심가치(核心價值, Core value)는 원래 인문학에서 많이 적용되는 단어가 아닌 경영학에서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향과 목적을 간단히 구조화 시켜 놓은 요소를 말한다.

최상권,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의 비교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7쪽

3) 구본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쟁점과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 교육학연구』5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2016), 54쪽.

에 믿음의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양자의 모습으로 연구의 방향을 맞추어 동양과 서양의 정신사적인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교(儒敎, Confucianism)와 기독교(基督教, Christianity)를 비교해 봄으로써 유교와 기독교가 어떠한 입장의 교육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며 양자의 종교가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상생적(相生的)인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 유교는 기독교의 공백을 기독교는 유교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종교적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이후에 논의되는 양자(兩者)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종교 교육적 차원의 선행적인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고전적인 입장에서 연구는 유교와 기독교의 입장을 동양 종교적 차원에서 지적인 줄리아 칭(변선훈 역)의 『유교와 기독교』(1994)로부터 시기적으로는 오래 된 연구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윤리적 관점으로 핵심적 가치관을 비교하여 정리한 오광언의 「유교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비교연구」(1974)가 있고, 한국 종교교육학회를 통한 많은 연구⁴⁾를 통해서 연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교 교육적 차원의 조화와 화합의 접점을 모색하는 입장보다는 주로 자신의 종교적 입장에서 교육적 기준을 세우는 연구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교와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 가치인 인과 사랑의 접점을 모색하고 그 하나 됨의 시작점을 찾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종교가 함께 살아가는 종교적 다원성을 갖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종교적 특수성과 종교적 보편성의 상대적인 측면을 긍정하고 열린 마음과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종교적 개방성을 갖는 연구의 방향을 지향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종교 교육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비교 가운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간과 되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종교적 영역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연구자 자신의 종교적 기반에서의 제한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유교와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교육목적 및 방향)를 비교해 봄으로써 종교 교육적 입장의 변화와 내용을 설명한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양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가치인 인

4) 크게 유교와 기독교적 종교교육으로 그 방향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교적 차원의 종교교육의 연구는 이세현의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2003)과 최영갑의 「제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연구가 있다. 기독교적 차원의 종교교육의 연구는 김청봉의 「종교교육학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한 시도」(2004)와 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 교육의 관계성과 영향을 지적인 손원영의 「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2001)연구가 있다.

(仁)과 사랑에 대한 비교⁵⁾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의 끝 부분에서는 핵심 가치를 중심한 종교적 현상을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 검토해 보고 다시금 살펴봐야 할 의미가 있는 과제를 덧붙여 언급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유교의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 : 仁(인)

유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윤리적 체계인가에 대한 오랜 세월동안의 논쟁은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논의⁶⁾되는 주제이지만, 굳이 종교의 울타리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유교의 종교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종교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⁷⁾ 인간과 삶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가지고 인간의 불완전한 삶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삶으로 인도하는 일정한 신념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종교의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⁸⁾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종교 교육적인 영역의 유교(학) 교육은 이러한 종교성을 근거로 인간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한계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극복해야 하는 교육적 이상을 그 방향으로 삼아 삶의 완성과 지선(至善)을 지향하는 교육학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⁹⁾

유교의 핵심가치는 인(仁)이다. 그렇다면 인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일정하지 않다. 유교는 인간의 일을 중시하는 인간에 관한 학문(人間學)이다. 그래서 그 종교적 종조(宗祖)인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仁)이 된다. 그러나 이 명확하

5) 본 비교연구의 관점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진 종교 사상들이 상호간의 비교가 되는 가운데서 현재의 종교적 위치를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서 그 간격의 긴장을 자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학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측면의 비교연구는 진리의 엄밀성을 검증하는 학문적인 시도인 동시에 믿음의 확고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양자(兩者)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 사상의 비교 연구는 종교의 미래를 전망하고 모든 종교에 대한 식별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6)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9), 31쪽.

7)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236~240쪽.

양자(兩者)의 입장을 유학 내에서도 학문적, 종교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종교로 대하면 유교를 중심으로 한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요, 사상 및 윤리와 철학으로 대한다면 유학에 대한 해석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종교성에 대한 논쟁은 무용(無用)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 성균관대학교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N세대를 위한 유교철학에세이』,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35~36쪽.

9) 이찬교, 최정숙, 조화태 공저,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39쪽.

게 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¹⁰⁾ 그 이유는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각기 달리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愛人)(顏淵篇) 혹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己所不欲勿施於人)(顏淵篇) 혹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克己復禮)(顏淵篇)라고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¹¹⁾

인(仁)자(字)의 출현은 고문서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때, 매우 늦은 것으로 고중에 의하면 갑골문 가운데는 인(仁)자가 없고, 일찍이 금문(金文)가운데서도 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시경, 서경, 역경의 삼서는 서주시대에 속하는 것이나 역시 인자는 극히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 이전에는 인에 대한 학설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仁자의 의미까지도 역시 모호하였던 것이다.¹²⁾ 인(仁)이라는 글자의 뜻을 풀이한다면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나란히 있어, 두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뜻이다.¹³⁾ 곧, 이인(二人)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이인은 즉 두 사람이다.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¹⁴⁾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닌,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¹⁵⁾ 즉, 인이라는 글자에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덕(德)과 의(義)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양적인 입장에 의하면 인(仁)이란 말은 크게 여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어질고 착하다는 뜻으로 마음의 덕을 가리키기도 하고, 둘째로 사람됨의 근본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 바탕이 인이라는 뜻이다. 셋째로는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특히 동정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넷째로는 덕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섯째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과일나무의 열매에 있는 씨를 가리키기도 한다.¹⁶⁾ 이와는 다르게 서양적인 동양학자들은 인을 모든 개별적 덕성들의 포괄적 전체를 의미하는 인간적 장점의 획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은 모든 사회적 미덕과 예를 그 본연의 정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포괄한다. 인이 갖는 사회적 측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용어가 사랑, 박애(博愛), 인간성 등의 번역을 갖게 되었다.¹⁷⁾

공자의 사상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논어」에서는 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108번이나 등장한다. 인은 공자 사상의 정수이며 극치이다. 공자가 일생동안 역설한 것이 인이라는 한 글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⁸⁾ 그의 삶 자체가 「논어」의 첫 시작

10) 최근덕, 위의 글, 17~19쪽.

11)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위의 글, 39쪽.

12) 이우, 「논어와 맹자 중의 仁자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서울: 중국학보, 1983), 36쪽.

13) 미우라도우사꾸, 박재주 외 공역, 『중국윤리사상사』, (서울: 원미사, 1997), 80쪽.

14) 미우라도우사꾸(박재주 외 공역), 위의 글, 80쪽.

저자는 이것을 인간의 공동체 즉, 사회(社會)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15)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서울: 사계절, 2005), 128쪽.

16) 이성배, 「유교의 인과 그리스도교의 사랑」, 『가톨릭사상』3집, (대구: 대구가톨릭대학, 1989), 38쪽.

17) 벤자민 슈월츠, 나성 역, 『중국고대사상의세계』(서울: 도서출판 살림, 1996), 123쪽.

과 같이 가르침(敎育)을 지향한 삶인 것과 같이 그의 이상 역시도 (유교)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 사림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사랑 밖에 없다.¹⁹⁾ 동서양의 어느 종교도 사랑을 핵심가치로 삼지 않는 사례가 없듯이, 결국 인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실현하는 길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인(仁)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적극적인 사랑이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걱정이 없다. 인간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곧 인자(仁者)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인, 바로 사랑을 기초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²⁰⁾이다. 그로 인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내면적인 힘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힘이며 인간됨의 방향성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타인을 인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인(仁)은 도덕적 책임의식의 자각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너와 남이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동질성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힘이다. 그래서 인이란 살맛나는 만남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 맺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다. 인이 사람다워지기 위한 기본 명제라면 효제(孝悌)는 그 인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혈연에 대한 사랑(親其親長其長)은 보편적 사랑과 상반되지 않는다. 유교에서의 인(仁)에 대한 해석은 가끔 “단계적 사랑”이라고 불러 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은 타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서와 책임의 감정에 근거해 있다. 그것은 느낌이고 덕목이며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지닐 수 있는 최상의 성품이다.²¹⁾

공자는 사람다운 삶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대하는 충서(忠恕)를 말한다. 인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충(忠)은 가운데(中)와 마음(心)이 합하여진 글자이다. 마음에 중심이 올바르게 서있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이다. 서(恕)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같다(如)와 마음(心)이라는 글자가 합하여져서 남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뜻이 된다.²²⁾

仁이라는 사람살이의 사랑은 자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 존귀함은 차이가 없다.²³⁾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존중은 더 넓은 범위의 자연과 생태계에

18) 김능근, 『중국철학사』, (서울: 탐구당, 1973), 46쪽.

19)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위의 글, 39쪽.

2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13쪽.

21) 줄리아 칭, 변선환 역, 『유교와 기독교』, (서울: 분도출판사, 1994), 138쪽.

22) 성균관대학교 유학주입교수실 편저, 위의 글, 55~57쪽.

대한 존중(互生之德)으로 이어진다. 공자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道)를 찾기 위해 평생을 다하였다. 그의 그러한 노력이 농축(濃縮)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의 철학이다.²⁴⁾ 인은 개인의 도덕적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중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인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인할 수는 있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공자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인으로 표현되었다.²⁵⁾ 인의 실현은 곧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완성은 사회의 완성을 이루고 결국은 세계의 완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교의 교육은 현실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시대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요구한다. 나아가 그러한 교육 역시도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작업이므로 삶 속에서의 교육적인 모습 가운데 교육적인 현실이 제대로 인식된다.²⁶⁾ 나아가 유교의 교육은 몸소 행하여지는 체험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진리와 시대 상황을 함께 이루어 내는 교육이 바로 유교의 핵심적 가치인 인이 갖는 최종적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仁(인)이라는 핵심가치가 현재의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교 교육적인 교육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유교에서는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였다. 공자는 제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개성과 자질이 모두 다름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인(仁)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는 단 한번 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하며, 제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명 해준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용야편」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먼저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뒤에 한다.”²⁷⁾고 하였고, 「자로편」에서는 “거처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일을 집행할 때는 공경스럽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사귄 때에는 충성스럽게 하라.”²⁸⁾고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공자의

23) 서양에서의 인격 주의적 윤리설의 대표는 칸트의 정언명령(定言命令)으로 대표되며, 한국 사상에서는 단군의 건국이야기부터 이어지는 조화(調和)론 적 사상의 흐름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24) 리허찌우(李澤厚), 임옥균 역, 『논어금독』, (서울: 북로드, 2006), 89쪽.

이러한 경지에 대해 「論語」(爲政篇) :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25) 성균관대학교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위의 책, 58~61쪽.

26) 이세현,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10쪽.

27) 리허찌우(李澤厚)(임옥균 역), 위의 글, 300쪽. 「論語」(擁也篇) 6.22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28) 리허찌우(李澤厚)(임옥균 역), 위의 글, 605쪽. 「論語」(子路篇) 13.19 樊遲問仁. 子曰 : “居處恭, 執事敬, 如人忠.”

교육적 내용은 교육적 대상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가능 했던 것이다. 또한 공자는 “교육에는 종류가 없다.”는 정신으로 교육에 임했다. 교육이란 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소질에 적응해서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이루도록 해야지 같은 유형의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주된 교육의 방향으로 생각해선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현대의 교육을 살펴 볼 때 종교 교육적 측면에 이와 같은 모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환경이 매우 중요한 관심요소가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수업에서도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선행되고, 소수의 그룹 인원으로서 학급을 편성하며, 교사와 학생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지하고 흥미 있는 토론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의 개성 중심적 종교 교육은 현대의 모든 교육에서 도입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명확한 분석 없이 무차별적인 시행은 우리 교육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방안을 연구한 전제 아래서 교육적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²⁹⁾

두 번째로 유교의 종교 교육 내용은 일방적인 강의나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만들어가는 문답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종교교육은 주입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³⁰⁾ 종교는 강요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다. 종교 교육은 학생들의 선택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실제로 느껴보고 또는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주입식 교육이나 교사의 일방적 강의를 통하여 주어질 수 없다. 특히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자기 종교의 교리는 옳고 다른 종교의 교리는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수업과정 중에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을 갖는 것과는 달리 배타적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주게 되며, 종교교육이 가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³¹⁾

세 번째로 유교는 무엇보다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공자는 학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배움과 사고를 병행해야 한다.³²⁾고 하였다.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양(종교)과목의 경우 중점으로 두고 있는 중

29) 최영갑, 「제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 『종교교육학연구』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51~52쪽.

3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교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129쪽.

31) 최영갑, 위의 글, 53~54쪽.

32) 리허찌우(李澤厚)(임옥균 역), 위의 책, 111쪽.

「論語」(爲政篇) 子曰：“學而不思則罔，學而不學則殆。”

교학적 종교교육의 경우 단순한 종교의 역사와 지식적인 측면만을 가르치는데 그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신앙적 종교 교육은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역시도 맹목적 신앙심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학적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 측면을 배양하고, 신앙적 종교교육을 통해서 종교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조화롭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종교 교육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것이다. 현대의 교육은 사고하는 인간 보다는 정형화된 인간을 만드는 데 치우쳐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이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방법과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³³⁾

이와 같이 유교의 교육은 그의 인(仁)을 지향하는 인간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선한 인간상의 모습을 지향하며,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숙하여 노력하는 인간을 위하는 종교 교육의 입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공자는 당시의 공식적 교육 교과인 육예(六藝-禮樂射御書數)를 통하여 단순한 기술의 습득과 지식의 획득만을 중시하는 교육적 입장이 아니라, 내적 측면의 정신적, 종교적 성숙까지도 겸한 종교적 내용을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 종교교육의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명제는 “과연, 이 유교 경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종교 교수-학습방법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의 정신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기반 아래 우리는 과거의 것을 과거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종교 교육적 틀을 갖고 다시금 재해석함으로써 유교의 종교 교육적 교수-학습 방법론의 체계를 잡아 가고자 한다.

먼저, 유교 경전교육의 대상인 학습자는 어린이에서 통치자(君王)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광범위한 대상만큼 교수-학습법도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가장 기본적인 유교 경전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은 바로 암송(暗通)³⁴⁾이며, 이는 어린 학동(學童)들을 가르칠 때 주로 적용되던 교수-학습방법이다. 두 번째는 도설(圖說)이다. 도설은 경전의 난해한 구절이나 전체적 의미를 남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세 번째는 인이불발(引而不發) 또는 갱신고(更辛苦)라는 방법인데, 오늘날의 교

33) 최영갑, 위의 글, 54쪽.

3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도덕』,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101쪽.

이와 같은 교수-학습방법의 모습을 평가에 적용하려 하는 입장이 도덕교과(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 전통윤리)의 입장이다. 조상들이 외우고 다녔던 중요한 잡(箴)을 암송하게 하는 평가 방법을 교육과정 상에 제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라 하겠다.

육학적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여 논의한다면 PBL(Problem-Based-Learning)³⁵⁾로 불리고 있는 문제 중심 학습법을 말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중심 되는 문제를 제시하여 동기 유발을 시켜놓고(引), 답변은 제시하지 않고 (不發), 스스로 찾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지적했던 암송이 주로 유교경전을 처음 배우는 초학의 학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면, 강(講, 강의)과 문목(答問)은 대체로 유교 경전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고등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방법이다.

이상으로 간략히 유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교의 종교적 교수-학습방법은 단순한 암송부터 시작하여 문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음을 볼 수 있었으며, 한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이타적인 삶의 실천(愛人)이라는 기본 규범에 충실한 경전 중심의 교육 강화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다시금 재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교 체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항상 학습자와 교실의 상황은 변화한다.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그 시대가 원하는 교육인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 왔던 동양 종교에 대한 심도 깊은 종교 교육적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Ⅲ. 기독교의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 : 사랑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목적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그의 근본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 이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신학적 전제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므로³⁶⁾ 학문적인 정체성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35) PBL은 Problem-Based Learning 문제 중심학습의 약어로 기존에 교육현장에서 주된 교수-학습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법을 지양하고, "문제(Problem)"를 제시하여 그것의 해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목표를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개별학습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익히고, 문제해결능력 및 협동학습능력과 자율학습능력을 기르는 학습자중심의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학습자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하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problem)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모형이다. PBL은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구성주의의 학습모형이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의 특징은 학습자중심의 교육환경을 강조한다. 즉, 지식은 개인의 인지작용에 의해서만 습득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고 본다. 이러한 PBL의 인식론은 학습구조를 자율학습과 협동학습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 EDUNET (중앙교수학습센터)

<http://project.edunet4u.net/lesson/content2.asp?gubun=1&idx=312&nowpage=1>

36)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4쪽.

는 기독교적 이념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 교육에 대해 강희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과 전통을 단순히 인지적·정서적 차원에서 전수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내용과 일치되는 삶의 형태를 행동적 차원에서 구별하도록 도와주고 그 실천을 격려하는 체계적인 교육활동”³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과거 전통들을 유지하고, 전수하며, 확장하는 것을 그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전승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교육과정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며, 전통을 전달하게 하는 일에 효과적이며, 전통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조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³⁸⁾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각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적 견해의 차이에 따라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의 훈련과 훈계 안에서”³⁹⁾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육성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한 종교 교단의 선교적 입장을 반영하는 정형화된 목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어떠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하는가? 우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결단을 하게끔 교육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기록과 전통의 전승 나아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능력을 발견하며 동시에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온전한 전인(全人)적 인간⁴⁰⁾을 형성하는데 있다.⁴¹⁾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한 다음,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우리를 자신을 조화시켜, 그 뜻에 따라 실천적 삶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⁴²⁾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 교육의

37) 강희천, 위의 글, iii쪽.

38) 김정봉, 「종교교육학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한 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4), 300쪽.

39)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8쪽.

40) 위와 같은 기독교 교육에서 전인적 인간의 모습을 지향하는 입장은 유교 교육적 차원에서는 완인(完人)적 인간이라는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언급되어있다. 결국 기독교와 유교가 각 종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과정에 따라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향점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1) R. C. 밀러,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1), 75쪽.

42) 송정근, 『기독교 교육과 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63쪽.

목적은 근거로 하여 더욱더 의미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 생애 가운데 세우신 모든 행적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뿌리가 되는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척도가 되는 나침반의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도 여러 신학자와 종교학자의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랑에 대한 내용을 평신도의 관점에서 가장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약성서⁴³⁾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았고, 사랑과 더불어 살아왔다. 사랑은 내적인 측면에서 한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필요 불가결한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관점에서 사랑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 사랑이 남을 위한 사랑이면 아가페(agape)이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면 에로스(eros)이며, 우정을 위한 사랑이면 필리아(philia)이다.⁴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과 신학의 핵심이며 사랑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서에 무려 630여회가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얼마나 사랑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⁵⁾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⁴⁶⁾ 하나님께서 죄인(罪人)인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갖는 진정한 종교적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교육적 활동은 바로 사랑을 지향한 교육적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교사와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인 사랑에 대한 교육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기회를 있으면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셨다.⁴⁷⁾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

43) 마태복음 22:37~40, 고린도전서 13:4~6, 13, 요한일서 4:7~11.

44) 전두하, 『사랑·인간 및 휴머니즘·현대철학의 제문제』, (서울: 선학사, 1999), 24~28쪽.

45) 김영일, 『그리스도교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3~114쪽.

46) 이재일, 「유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 교육에 대한 (논평)」, 『종교 교육학연구』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50쪽. 이재일은 논평 문에서 종교를 이상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종교의 소속된 구성원들은 창시자 닮기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47)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마 4:23) /

의 행적을 통하여 명확하게 찾아 볼 수 있다.⁴⁸⁾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본래 당시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교육적 대상은 그 시대의 민중과 그 사회에서의 가장 약한 타자(他者)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동거 동락하시며 실천적 삶을 통해 교육적 모범을 보여주셨다. 나아가 일방적이고 주입하는 교육 보다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는 각성의 방법을 사용하셨으며,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얼굴로 다가오는 타자(The Others)⁴⁹⁾(민중)들을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수용하고 새롭게 살리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의 교육을 실천 하셨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의 교육은 기존 교육과 차원을 달리한다. 곧,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한 교육이다.⁵⁰⁾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여타 선생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모습이었으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과 그 분이 갖추신 신분이 유일무이하게 하늘과 관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교육은 이스라엘 교사들의 가르침 보다 그 성격과 수준에 있어서 격이 다른 우월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교육목적의 중심이 예수님의 교육적 실천에 근거한 사랑의 교육에 있으며 모든 교육적 대상을 하나님나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모든 학습자들을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것에 목적⁵¹⁾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교육적 방향과 목적을 통하여 교육의 내용을 이후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독창성에 대한 내용이다. 율법의 오랜 전통을 깨고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의 해석을 부여하시며 복음의 완전성과 완성을 선포하셨다. 둘째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교육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내용으로 군중에 대한 친밀한 사랑과 만남 그리고 배려가 그 특성을 이룬다. 병자, 결인, 소외된 여인, 멀리 받는 자들의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 얻게 하셨다. 셋째 자유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교육은 권위주의나 강제적인 교육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권위와 진리가 있었다. 네 번째 각성에 대한 교육내용이다. 진리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지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과정 중 질문을 통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사고를 유발시키도록 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올바른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여주셨다. 공동체를 통한 제자 훈련은 지식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의 훈련이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 복음의 현장에서 실습과 체험을 통하여 예수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거늘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마 5:1~2)

48) 정경옥, 『기독교의 원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교육국, 1935), 57쪽.

49)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182~183쪽.

50) 한국기독교교육협회 편저,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9), 115~117쪽.

51)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서울: 베다니, 1999), 70쪽.

님의 사역을 이해하였다.⁵²⁾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구원과 변화된 주권이 실현되는 공동체와 관련 된 가르침의 강조와 더불어 아가페(agape)적 사랑에 대한 실천이 교육적 내용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교육 방법을 통하여 새롭게 기독교의 교육의 현장에서 변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아래와 같은 7가지 범주로 정리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고전적 교수-학습 방법은 예화 비유법으로 학습자들의 깊은 사고와 지속적인 음미를 유도함으로써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시켰다. (막 4 : 1~9 ; 13~20) 두 번째는 실물·실습 법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재로 활용하셨다. (마 5:13~16) 세 번째로는 설교 및 강의법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설교 혹은 강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전달방법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유롭게 설교 혹은 강의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마 5:1~12) 네 번째의 방법은 질의·응답 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질의, 응답 법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셨다.(마 16:30) 다섯 번째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에 관한 교육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셨다. 여섯 번째는 대화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나 사도들과 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요 4:1~42) 일곱 번째는 반어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비난하는 이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반문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다.⁵³⁾ (누 11:14~23)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교육적 대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직접 교육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적 교수-학습 방법은 말씀을 듣는 학습자 및 교육 대상에 따라서 다른 교수-학습 방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전 인격을 투신하신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교육적 방향 및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원리들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原)현상이다. 교육이라는 삶의 현상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 가능하고 교육 필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타락한 이후에도 교육의 형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

52) 장원철, 『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9), 39쪽.

53)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회, 2002), 47쪽.

신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⁵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인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 철학과 목적,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교육적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방법론과 원리가 되어야 한다.

IV. 핵심가치로 인한 종교적 변화 양상 비교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교와 기독교 양 종교는 서로의 입장을 지켜 오면서 중요한 핵심가치를 성장시켜 오는 교육적 변화를 통해 한국의 종교적 토양에 막대한 양분을 제공하여 왔다. 먼저 유교는 그의 교육적 핵심 가치인 인(仁)을 통한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근간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사회를 주도하여 왔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은 현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⁵⁵⁾

첫째 유교는 가부장적⁵⁶⁾ 절대왕권 제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 사회라는 기본적 모형에 입각하여 그 사회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지향하기 보다는 정(情)적 유대관계를 통한 혈연의 관계로 그 사회 질서 유지가 당연히 되었고 그러한 모습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농업이었다. 특히 유교의 철학적 체계화로 인하여 파생된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적 농본사상을 더욱더 강조하게 하여 농업이 본업이 되고(農者天下之大本), 상공업이 말업(末業)이 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업 본위의 경제 체제는 토지에 대한 각별한 애착 심리와 자연에 대한 조화 와 순응의 신앙을 낳았고, 노동력의 증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남성의 가치가 선호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유학적 명분론에 근거를 둔 한국의 사회는 사회적 신분제를 통해 신분적 양분법에 기초를 두고 양반과 평민을 나누어 엄격한 수직적 인간관계를 이루었으며 사회적인 상하 신분간의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그로 인하여 신분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적·사적인 권리와 의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신분간의 이익차가 극히 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사회에 내재한 삶의 측면에서 유교적인 윤리 관점이 그 기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종(從)적인 질서를 확립시켰고,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

54) 오인택,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22쪽.

55) 이계학 외 공저,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8~9쪽.

56) 이계학 외 공저, 위의 글, 10쪽. 유혜령은 이러한 가부장권의 남성 적장자 세습자는 철저히 혈연논리에 의거하여 합법화 되어 자동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전통 사회는 사회적인 기강면에서, 또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가치 보다 자신이 속한 문중(門中)과 가계(家系)속의 서열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파악되는 관계적 맥락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⁵⁷⁾ 특히 이러한 종적이며 가정을 중심한 인간관계는 유교적인 전통사회의 윤리적 특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형성은 이후 여타 외부 사상의 수용에 있어서도 그 사회의 기초가 되어 영향을 주고 유교 자신 역시도 변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개신교)의 경우 1884년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 땅에 첫 발을 들여 놓은 세 명의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교가 바로 교육적인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문헌을 통해 보더라도 그들의 선교 사업이 교회의 주일학교가 아닌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통하여 오히려 당시의 교회 설립이 학교 설립보다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⁸⁾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성서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교의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당시의 19세기 한국의 개화 물결에 따라 신교육 운동과 의료사업을 주축으로 선교의 기초를 굳히게 되었다.⁵⁹⁾ 한국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단순히 교세의 확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교 초기부터 문화 운동을 동반하여 한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개신교가 벌였던 선교 및 문화운동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⁶⁰⁾

첫째, 신교육 사업이다. 기독교는 한국 최초로 서구의 신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이것을 일반화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둘째, 문서 운동이다. 기독교는 선교의 과정 중에 성서와 찬송가를 보급하여 한글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그 밖에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와 “기독신보”와 같은 신문도 한글로 간행되었다. 셋째, 청년 운동이다. 교회마다 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여 청년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으로 한국 민족 지도자의 대부분을 배출한 YMCA를 창립(1903년)하게 되었다. 넷째, 여성 운동이다. 구한말의 유교적 보수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한국 여성에게 해방과 교육의 기회를 열어 준 것은 기독교였다. 다섯째, 의료사업이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의료기관은 한방의(韓方醫)와 무당(巫堂)의 활동이 있었을 뿐이었다.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된 알렌박사가 광혜원을 설치하고 환자의 치료와 의학교육을 시작함으로써 한국 땅에 서구의 의료기술을 심은 역사적인 의료 선구자가 된 것이다.⁶¹⁾

이와 같이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와 선교활동을 통해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바로 기독교

57) 이계학 외 공저, 위의 글, 12~14쪽.

58) 한미라,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5), 61쪽.

59) 유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서울: 전광사, 1982), 39쪽.

60) 한미라, 위의 글, 64쪽.

61) 한미라, 위의 글, 65쪽.

교의 핵심적 가치인 사랑이 깃들여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 정신의 실천을 위해 기독교 자신도 선교의 토양이 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종교적 토착화에 대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유교는 16세기 이래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서구 문물의 침투는 사상적인 면과 기계 문명이 낳은 생활 수단과 관습·제도·사회 구조와 군사력을 대동하고 사회적인 붕괴에 앞서서 사상적인 동요가 일어났고 근대화가 촉발되었으며,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유교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회 구조와 윤리적 질서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이른바 사회 해체(anomie)를 겪는 것이었다.⁶²⁾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유교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구적인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을 받아 유교의 종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은 현재까지도 종교계에 많은 논란과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유교의 종교화 선언⁶³⁾이다. 유교의 종교화는 앞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유교 내에서도 그 밖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현재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유교의 종교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선두에 서 있는 금장태 교수는 유교의 종교적 특성은 제사에 있어서 천(天)과 조상의 신(神)을 하나의 근원 속에 통일시켜서 신앙하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천(天)의 인간 속에 내재화를 믿고 성실과 경건으로 인간의 완성, 즉 천의 체현(體顯)을 이상(理想)하는 신앙이야말로 유교의 본질적인 종교적 성격이다. 이러한 종교적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매제는 역시 종교 신앙적인 측면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부각시킨 기독교의 영향이 아닐 수 없다.⁶⁴⁾ 유교 자체의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와 가족 중심의 윤리적 범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 자신의 종교적 심성에 인(仁)의 핵심가치를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유교의 종교적 변화는 분명히 오늘은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선교와 문화 활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양적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나타나야 하는 질적인 측면의 모습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낳게 되었다. 물론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 위주의 선교 지향성과 한국의 근본적인 기복(무속적)신앙의 바탕은 한국 교회의 정체를 이

62)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적 세계』,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4), 114~115쪽.

63) 최근덕, 「인간지향의 유교가 꽃피는 21세기」, 『우리 길벗』, (서울: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2006) 4월호. 유교의 종교화 선언은 1995년 최근덕(崔根德)당시의 성균관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작업으로 많은 유럽단체가 생각했던 유교는 미신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강남대 황필호, 서울대 금장태 교수를 중심으로 벌여졌던 논의를 거치면서 나타난 입장이다. 당시 유교의 종교화를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4가지 원칙은 첫째 유교의 종교화, 둘째 유교의 공맹화, 셋째 유교의 한국화, 넷째 유교의 대중화를 원칙으로 내걸고 있으며 현재 그 작업을 더더욱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64)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4), 231쪽.

루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의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선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점은 결국 근본적으로 대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아닌 근원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 목회에 대한 관심 집중이다. 기본적인 종교성뿐만 아닌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습관 및 태도는 바로 가정을 통하여 습관화 되고 배양된다.⁶⁵⁾

그와 같이 가정 안에서 비롯되는 무의식적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다운 의미의 한국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 윤리적 실천을 이룩하기 위해 참다운 문제 해결 방안은 바로 기독교 가정의 올바른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⁶⁶⁾ 이러한 가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교육학자인 호레이스 부쉬넬(H. Bushnell)을 들 수 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매개가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힘으로써, 이 힘은 가정 구성 자들의 신앙과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힘 자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는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는지를 주장하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의 시작은 부모님들의 신앙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서 주어지는 유아세례에 있다고 믿었다. 셋째로 가정은 그 본질에 있어 유기적이라고 보았다. 넷째로 이러한 유기적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 이루는 신앙과 삶의 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부쉬넬의 종합적인 견해는 가정 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깃드는 곳이며 더욱이 신앙적인 자녀사이의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의 은총이 매개라고 이해하고 주장한다.⁶⁷⁾ 그러나 가정을 중심한 가정목회에 대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가정이 비인격적인 집단으로 변하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과 돌봄의 결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말이 된다.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부분이 가정(家庭)이다. 유교에서 논의하는 일차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의 기반을 전제하여 설정되듯이, 기독교 역시 대 사회적인 선교를 개인이 아닌 가정에서부터 교회 부흥의 씨앗이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는 가정의 중요성과 교육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⁶⁸⁾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국의 유교적인 가부장적 질서 내지 가족 공동체와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구성원의 영향에 의해 개인에

65) 김남식,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2), 85쪽.

66) 김남식, 위의 글, 85~86쪽.

67) 허일룡, 「기독교 가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9), 18~24쪽.

68) 배광식, 「가정목회」,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0), 90~91쪽.

서 가정으로 목회의 초점이 변화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 목회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때,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과 이론을 연결시키는 한국적 가정 목회의 현장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은 모습으로 본론에서 정리된 유교와 기독교의 핵심가치를 중심한 양자의 입장을 간단한 표의 형식으로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표 1>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조 69)

구분 내용	유 교	기 독 교
핵심가치	인(仁)	사랑(Agape, 博愛)
종교적 주재자 ⁷⁰⁾	하늘(天)	神(여호와, 하나님)
주재자의 성격	1) 반 인격적(半人格的) 2) 초월적 권능행사가 없다.	1) 완전한 인격화(人格神)이다. 2) 초월적 권능행사를 행한다.
교조(敎祖)	공자 (孔子)	예수(Jesus Christ)
종교적 이상의 성취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그것이 곧 하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종교적 이상인 대동 사회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질과 육신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버리고 남은 나 자신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천국)를 성취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세관	현세에 충실하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길(道)이 곧 종교적인 길이라고 판단함.	현세는 물질과 육신에 속하는 세속화 된 곳이기때문에 불완전한 세계이므로 지양(止揚)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내세관	죽은 뒤에 내세나 극락과 같은 영생을 누린 다거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와 같은 사상적 체계는 없다. 다만 자손이 남을 뿐이라고 믿는다.	현세는 오직 내세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가치와 목적은 내세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신앙 양식 ⁷¹⁾	일상생활을 통하여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 이외에 각종 제의(祭儀)에 참여 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찬송 이외에 교단의 신학적 방향과 교육에 따라서 집회 참여와 적극적 협조하는 것.
교단(敎團)	일반 교인의 조직적인 교단이 형성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문묘와 시, 군 단위에 향교가 있음. 직책 대표자 및 관계 임원들만의 참여로 운영 된다.	교인 거주지엔 원칙적으로 어디에나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 운영 및 선교는 교인들의 신앙적 의무로 되어 있음. 이와 동시에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협조와 복종은 엄격하고 교단의 국제적 유대관계도 긴밀하다.
종교적 변화 양상	유교의 종교화 선언	가정 목회의 추구

69)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편, 『비교 사상론 I』, (서울: 도서출판일념, 1986), 94~95쪽.

70) 유교의 천(天)은 외재적, 주재(主宰)적 개념에서 내재적 덕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공자에 이르러 인간의 인격적, 도덕적 근거로서 인(仁)이 자각되고 천(天)이 의식화 되어 짐에 따라 천은 내재적 덕성의 근원 그리고 도덕적 근원처로 이해되어 졌다.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하나님(神)은 인격화된 신이며 무소불능의 신이며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며 초자연적 성격이 강하여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 가치인 사랑과 「논어」를 통하여 나타났던 유교 교육의 핵심적 가치인 인(仁)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교육적 핵심가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연구자가 정리한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 두 가지의 핵심적 가치가 하나 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仁)에 대한 각각의 지역적 차이 및 시대적 배경과 출발점은 다르나 모두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과 공경함으로써 서로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하기에 결국 두 입장 모두 인간학(人間學)⁷²⁾이라는 큰 범주 아래 묶일 수 있을 것이며 양자의 강조점으로 인하여 가족의 범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이든 그 핵심적 공통분모는 바로 인간이며 나와 타자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시대에 지금까지 많은 역사상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변화의 시간을 거쳤던 두 종교의 모습이 서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지니면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 양자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현실적 차원의 종교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인과 사랑이라는 두 종교의 핵심가치를 통하여 조화적인 입장을 갖고 유교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범위를 타자(他者)에서 더 넓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더 확대된 범위로 그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시켜나가는 다원적인 지평의 확대와 대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실천을 계속하며 이제는 작은 미세한 차원의 종교적 실천과 교육적 내용의 적용이 필요한 기독교 공동체의 세밀한

기적을 일으키는 기능이 현저하다. 유교와의 차이는 간략히 비교해 보자면, 유교의 하늘은 기독교의 신(하나님)에 비해 소극적으로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 71) 신앙적 양식과 교육적 현실의 관점에 있어서 유교인은 이상적 인간인 군자(君子)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겸양과 미덕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선의 예절을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인을 근본으로 하여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의 사상으로 교육적 현실의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신앙 양식은 삶 가운데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 및 성경봉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신앙적 양식의 기본으로 삼으며 본래의 특징인 유일신 사상인 사랑을 핵심가치로 삼고 만민평등사상, 평화복지 사상, 인간의 존엄성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모든 분야에 긍정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으로 교육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72) 정재현, 『신학은 인간학이다』, (서울: 분도출판사, 2003), 460~461쪽.

정재현은 위의 글에서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신학(종교학)이 인간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깨닫지 못한 지금까지의 신의 말씀에 대한 오해하고 빙자함의 역사를 다시 반성하며 그러한 반성과 주제파악의 논의가 결국은 신학을 하는 인간 자신을 해방 되게 할 수 있는 통찰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신학은 인간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교와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유교와 기독교 역시도 인간 자신의 가족공동체적 현실을 돌아보고 나아가 우주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종교적인 논의의 양자가 결국 인간자신을 해방시키는 인간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교육적 입장에 대한 초점이 겹치게 되는 상황일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종교(宗教)교육학적 관점에서 하나 됨 그리고 조화 및 화합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조그마한 시작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 문화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⁷³⁾과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유교와 기독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의 종교적 상황에서 하나 됨의 차원을 발견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더 심도 깊은 연구와 더 폭넓은 방법론의 접근을 통하여 유교적 기독교 교육(confucian Christian Education) 또는 기독교적 유교 교육(christian Confucian Education)⁷⁴⁾으로의 심화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더 많은 종교(유교-기독교)교육의 학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갖고 서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는 개방적인 종교 교육적 시도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73) 구본만, 위의 글, 54쪽.

74) 유교적 기독교 교육에서의 모습은 유교적인 예절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교육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며, 기독교적 유교 교육은 기독교에서의 절대자의 추구하고 영향으로 인한 유교의 종교화 선언과 같은 종교화의 모색이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닌 온전한 조화의 모습으로 서로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리허쩌우(李澤厚), 임옥균 역, 『논어금독』, (서울: 북로드), 2006.
- 미우라도우스카, 박재주 외 공역, 『중국윤리사상사』, (서울: 원미사), 1997.
- 벤자민 슈월츠, 나성 역, 『중국고대사상의세계』(서울: 도서출판 살림), 1996
- R. C. 밀러,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1.
- 줄리아 칭, 변선환 역, 『유교와 기독교』, (서울: 분도출판사), 1994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도덕』,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교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적 세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4.
-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김능근, 『중국철학사』, (서울: 탐구당), 1973.
- 김영일, 『그리스도교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백남진 · 온정덕,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6.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편, 『비교 사상론 I』, 서울: 도서출판일년, 1986.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성균관대학교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N세대를 위한 유교철학에세이』,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 송정근, 『기독교 교육과 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오인택,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 유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이계학 외 공저,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이찬교, 최정숙, 조화태 공저,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 장원철, 『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9.
- 전두하, 『사랑 · 인간 및 휴머니즘 · 현대철학의 제문제』, (서울: 선학사), 1999.
- 정경옥, 『기독교의 원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교육국), 1935.
- 정재현, 『신학은 인간학이다』, 서울: 분도출판사, 2003.
-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서울: 사계절), 2005
- 한국기독교교육협회 편저,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9.
- 한미라,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5.
- 구본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쟁점과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 교육학연구』51,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2016)

김남식,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2)

배광식, 「가정목회」,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0)

이우, 「논어와 맹자 중의 仁자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서울: 중국학보, 1983)

이성배, 「유교의 인과 그리스도교의 사랑」, 『가톨릭사상』3집, (대구: 대구가톨릭대학, 1989),

이세현,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이재일, 「유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 교육에 대한 (논평)」, 『종교 교육학연구』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최근덕, 「인간지향의 유교가 꽃피는 21세기」, 『우리 길벗-4월호』, (서울: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2006)

최상권,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의 비교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최영갑, 「제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 『종교교육학연구』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허일룡, 「기독교 가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9)

EDUNET (중앙교수학습센터) :

<http://project.edunet4u.net/lesson/content2.asp?gubun=1&idx=312&nowpage=1>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일: 2017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최상권

① 전공: 교육학과 /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③ 주요논저: 「종교교육적 핵심가치의 비교 연구」

④ E-mail: sangtang@hanmail.net

Abstract

**Religious Educational Comparative Study on
Christianity and Confucianism:
Centering religious educational core value**

Sang-Kwon Cho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a Religious Educational Comparative Study on Christianity and Confucianism and aims at reaffirming lessons and fundamental spirits of educational materials by exploring core values of Confucian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view of open religious educational study stemming from recognizing religious pluralism social landscape based on understanding between religions and communication skills offered as core competencies of religious studies set on the ground of a general theory of curricula from 2015 revised curriculum that has been newly revised and at discovering ways to discuss theories and practices that can have impact on everyday education by looking fo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ased on the core values.

First, educational philosophy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revolves around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God. It aims to produce virtuous people such as gentlemen based on benevolence, and to move the community closer to united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help human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recover the kingdom of God by raising humans to become volunteers that contribute to making humanity as disciplined Christians.

Having examined the both sides, I concluded that the core value of the two is unity. Time period, starting point, and interpretations about Gods love or Confucius's benevolence depending on the regions may be different. However, they both offer grounds as to why we should get along with others by understanding, respecting, and honoring one another with love for everyone. Therefore, regardless of their differences in focus, Confucianism on family and Christianity on every member of mankind that is a

creation of God, both of their arguments can be classified under the same category of human study with the core common denominator being human, which gives u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I and others should coexist.

Most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maintain their own religions perspective. Especially, studies that compare two different religions arguments in the aspect of religious education have been extremely rare. In that regard, this study is limited in finding out a tiny starting point that suggests that unity, harmony, and concord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educational study with harmonious mind-set through both religions core value, benevolence and love in the face of today's religious pluralism. I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attempts in religious educational field to look for possibilities of deeper religious education toward Confucian christian education or Christian confucian education through broader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more extensive studies of the both and that more Confucian and Christian educational scholars will discuss on such matters and join forces.

Key words: 2015 revised curriculum, core competence, Confucianism, Christianity, core value, religious pluralism, Comparative religious study, Christian Confucian education, Confucian Christian education.